

■ 교회소식 ■

1. 남북평화통일기도주일 : 오늘은 남북의 교회가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2. 성경공부 : 오늘 오후집회는 청파성서학당입니다.
3.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 수요집회 : 이번 주 수요집회는 광복절 관계로 쉽니다.
5. 신앙실천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청 년 부 : 8월 17-19일 (용인 향린교회 수양관)
 <피정 - 침묵의 기쁨, 고독의 평화>
 아 동 부 : 8월 19-20일 (강화 베로니카네 집)

다음 주 설교 본문	욥 9:1~1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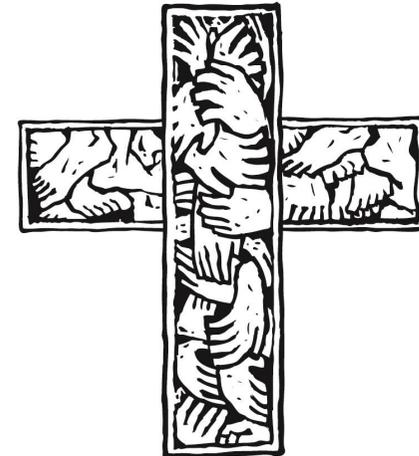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곽권희	안종일	

8월	1부 영접위원	박명제	헌금위원	서미경
	2부 영접위원	이한림 정원석 박석희 고숙이 김현영 조항미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미영		

오늘 식당 봉사	정영선 김애순 김경혜 안현숙 엄은경 신현일 김정훈 곽상준		
다음주식당봉사	고숙이 오송경 이준림 한양미 정은선 김희숙 안성호 황현성		
오늘설거지봉사	2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2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설규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2주 】 인도 1부 : 신진식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에서 부서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굳건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 이웃들에게 새 힘을 전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흘 뒤면 광복절 73주년을 맞이합니다. 때마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전쟁과 분단, 반목의 아픔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화해와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130:7,8 인도자
 ▲ 교 독 문 100. 나라 사랑(2)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이범석 목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582. 어둔 밤 마음에 잠겨 다 함께
 ▲ 성경봉독 로마서 9:1~5 I. 인도자
 II. 박구병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주님은 울습니다 마중물 찬양대
 II. 주는 나의 목자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정자 구재원 권미정 권선원 권혁순 박혜경 김광일 이부용 김남종 오복순
 김애순 김영미 김영순 김예준 김윤수 박상호 김인석 이선화 김정길 최숙화
 김정민 이해령 김지해 김지호 전해리 김창숙 김은종 김태정 김혜영A김희진
 박홍재 박경원 박규석 박경선 박기영 박기원 이미영 박노수 남인자 박미희
 박상옥 임서영 박숙미 백묘현 백성래 서수진 송남필 송형운 하미림 안성호
 김희숙 오자영 유경주 윤영미 윤정득 이건호 윤영주 이왕준 송상경 이용현
 이우상 이계월 이은주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정은 이증자 이한림 김명희
 임당재 임선자 장기환 장원호 박성희 정두리 정재기 정종삼 정택중 조순덕
 조영순 최병민 서지연 최 숙 최영민 이상미 최윤희 최은미 최진성 최영은
 최 현 한상경 한상균 한선희 한성건 정지혜 한인철 조윤숙 홍윤선 무명1

감사헌금

권경혜 권미숙 김경미 김반야 김성수 김영호 박순자 방대권 변재민 이소혜
 이계선 이소순 이광재 이상도 이자애 이재삼 전정현 이증자 이한림 김명희
 이현정 임선아 윤선호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장현희 전길남 김경희 조영순
 채일석 최영은 최진성 한성건 정지혜 황현성 이오복 무명4

생일감사헌금

권미정 최혜정

녹색꿈헌금

김향자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막막한 날엔

- 복효근

왜 모르라
 그대에게 가는 길
 왜 없겠는가
 그대의 높이에로 깊이에로 이르는 길
 오늘 아침
 나팔 덩굴이 감나무를 타고 오르는 그 길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속도로
 꽃은 기어올라
 기어이 울음인지 웃음인지
 비밀한 소리들을
 그러나 분명 꽃의 빛깔과 꽃의 고요로 쏟아놓았는데
 너와 내가 이윽고 서로에게 이르고자 하는 곳이
 꽃 핀 그 환한 자리 아니겠나 싶으면
 왜 길이 없으랴
 왜 모르라
 잘 못 디딘 덩굴손이 휘청 허공에서 한번 흔들리는 순간
 한눈팔고 있던 감나무 우듬지도
 움칫 나팔덩굴을 받아낸다
 길이 없다고 해도
 길을 모른다 해도 자 봐라
 그대가 있으니 됐다
 길은 무슨 소용
 알고 모르고가 무슨 소용
 꽃피고 꽃 피우고 싶은 마음 하나로
 허공에 길을 내는
 저기 저 나팔덩굴이나 오래 지켜볼 일이다

말 씬 신앙인의 애국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찬 양	하늘빛중창단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택 받은 백성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는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의 정신으로 헌신하십시오. 평화를 일구어 가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이끄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합해 우리의 터전 위에 생명과 평화의 복을 심고 잘 가꾸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광복절 (쉽)

■ 남북이 함께 드리는 기도 ■

2018년 평화통일남북공동기도주일 기도문

사랑의 하느님!

한 하늘아래 하나의 강토에서 살고 있는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올해에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광복절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우리는 그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3년간 분단된 채 갈등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실로 고백 하나이다.

역사의 하느님!

우리는 2018년 오늘의 광복절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이 겪어온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의 세월이 점점 물러가고 평화와 번영의 무지개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어오름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느님!

분단과 갈등의 대명사였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어 마침내 남과 북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불씨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의 걸림돌들과 전쟁의 온상들을 말끔히 거둬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의 하느님!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기 원합니다. 5천년의 민족사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70여 년 간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의 분수령에서 우리 민족의 삶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이끌어주소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화해와 통일로 이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이루어주소서.

창조의 하느님!

민음의 눈으로 보니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작점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맺은 평화의 선언이 활짝 꽃피어 온 겨레가 것처럼 바라던 평화와 통일의 열매가 주렁지도록 이끌어주소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힘써 일하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지지해 나서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